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 NIOSH, 작업장 안전문화 강조



말레이시아 정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 최근 작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경비지출이 아닌 '투자'

최근 Tan Sri Lee Lam Thye 말레이시아 NIOSH 원장은 "기업과 고용주는 산재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주가 유념하여 할 다섯 가지 핵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작업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고용주가 안전을 늘 염두하고 고용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을 경비지출이 아닌 투자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작업장 안전문화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태도와 습관, 믿음, 가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그는 산업안전보건문화의 기본 요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고용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에서 근로할 근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본인 및 타인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Tan Sri Lee Lam Thye 원장은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조직 내 고용인들 간에 또는 고용인과 고용주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감 형성은 고용인의 책임감을 키우고 작업장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끝으로 그는 조직 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리더십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안녕(well-being)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는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말했다.

교육부 제2차관, 유치원에서부터 안전보건지식 주입 주장

한편 Datuk Mary Yap Kain Ching 말레이시아 교육부 제2차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지식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의 일부로 주입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Ching 제2차관은 아이들의 인식이 제도의 이미지나 질, 우수성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학교 차원에서의 캠페인을 늘리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Ching 제2차관은 "조기안전교육을 강화해야 아이들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장소이어야 하며 이는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